

Treasure of Malaysia

수트라하버 리조트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달콤한 휴가를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일은 즐겁다. 휴가를 앞두고 가족 혹은 연인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평온한 휴식은 물론 지루하지 않은 시간을 보장하는 곳, 말레이시아의 수트라하버를 후보에 올려보자.

EDITOR 방은주 | COOPERATION 수트라하버 리조트 한국대표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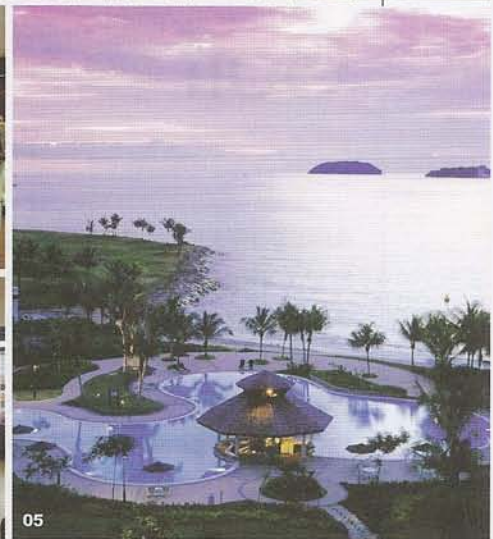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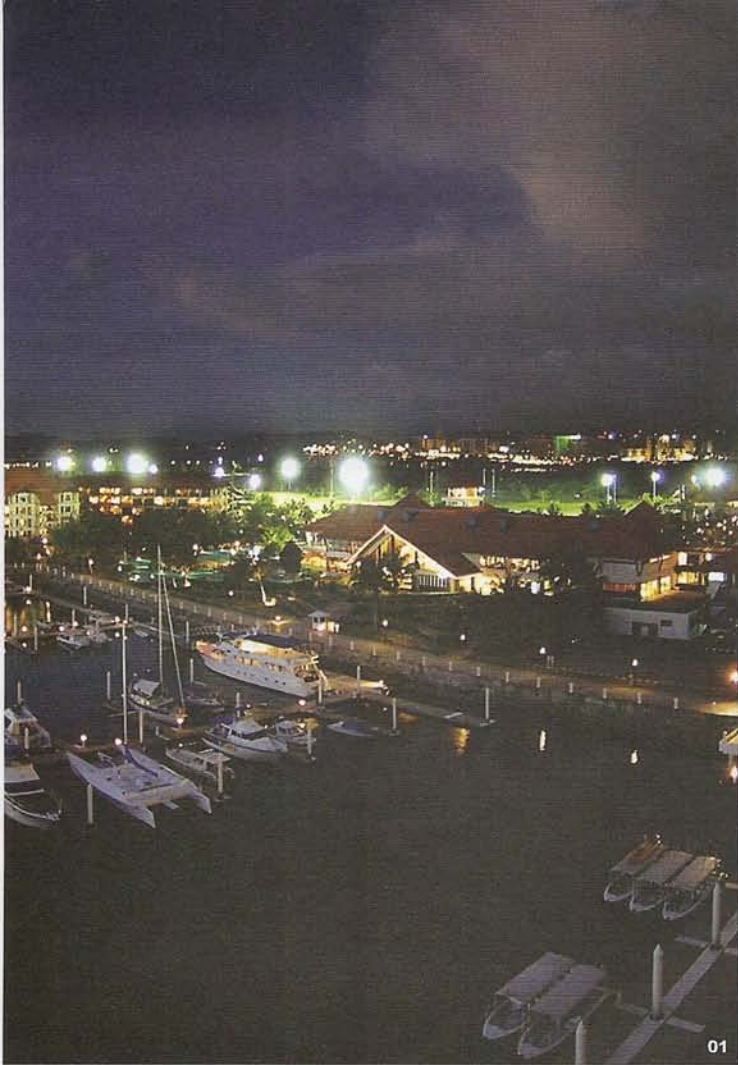
자연 재해가 없어 '바람 아래 고요한 땅'이라는 수식어가 저절로 따라다니는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끝없이 펼쳐지는 맑은 블루빛 바다와 해변을 따라 늘어선 최고급 휴양 리조트들이 꽤나 낭만적인 휴가를 상상하게 한다. 물론 이 상상은 곧 현실이 된다. 공항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차로 5분 정도만 달려가면 이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마치 또 하나의 고요한 나라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호화로운 수트라하버 리조트와 조우하게 되니까. 바로 이곳에서 어디서도 누리지 못할 호사가 시작된다. 웅장한 자연의 선물인 키나발루 산을 등지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남지나 해와 마주하고 있어 사람과 자연이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는 리조트. 특히 이곳은 말레이시아 국왕이 휴가와 생일에 묵었던 로열 리조트로서 왕족이 된 듯한 서비스를 받으며 철저하게 귀빈이 되어보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 현대식 스타일의 퍼시픽 수트라와 화려하고 웅장한 리조트 스타일의 마젤란 수트라. 두 단지를 합하면 모두 956개나 되는 거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니, 코타키나발루 안에 또 하나의 작은 나라라고 해도 무방하다.

탁 트인 시뷰가 자랑인 마젤란 수트라

마젤란 수트라(Magellan Sutura)는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나지막한 4층 높이의 전원형 리조트 건물로 그 안에 모두 456개의 객실이 들어차

있어 규모는 꽤나 거대하다.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편안함이 이곳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안도감을 준다. 특히 자연과 어우러져 조용히 머물고픈 럭셔리 허니문녀와 가족 관광객들에게 제격인 리조트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품위와 전통미가 조화된 객실은 모두 개인 발코니가 넓게 구비되어 있어 객실에 머무르는 시간도 충분히 낭만을 누릴 수 있다. 발코니 밖으로 펼쳐져 있는 남지나 해의 청정 해변이 아름다워 객실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욕실과 침실 사이의 고급 나무 장식 창문은 아기자기한 멋을 더하고 꽤나 이국적이며 호텔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바다와 배를 소재로 한 인테리어 장식과 작품들은 해양 탐험가 마젤란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시관이라 해도 무방하다.

적당히 낭만을 즐기고 시장기가 밀려오면 인터내셔널식, 중국식, 말레이시아식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파이프 세일즈(Five Sails), 지중해식 파스타와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알프레스코(Al Fresco), 정통 이탈리아 주문식 고급 디너를 준비하고 있는 페르디난드(Feredinand's), 음료와 주류, 간단한 스낵, 케이크를 즐길 수 있는 타릭스 로비 라운지(Tariks Lobby Lounge) 등 어느 곳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다. 휴가차 리조트를 찾았다면 이름만으로도 세계적 스파 브랜드의 명성을 느낄 수 있는 '만다라 스파'를 꼭 받아봐야 한다. 말레이시아 전통의 만다라



스파를 받아보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만다라 스파는 천연 재료의 아로마테라피와 동양의 황실에서 막 시수한 듯한 진귀한 장식과 함께 향기롭고 부드러운 트리트먼트까지 신선한 천연 성분을 통해 자연 치유 효과는 물론 미용과 피부 재생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

세련됨이 물씬한 모던 스타일의 퍼시픽 수트라

보다 현대적이고 모던한 스타일을 원한다면 퍼시픽 수트라(Pacific Sutra)를 선택하면 된다. 마젤란 수트라가 말레이시아 전통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퍼시픽 수트라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 타입으로 세련된 감각의 리조트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쾌적함이 전해진다. 도회적인 모습의 객실 안에서 장엄한 키나발루 산의 풍광을 바라보는 것 또한 황홀한 경험이 될 것. 특히 퍼시픽 수트라는 세계 5대 선셋 명소로 손꼽힌 코타키나발루 남지나 해의 풍광을 놓치지 않도록 시부가 개별 발코니를 통해서 내려다보여, 객실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양이 가능하다.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인 카페볼레(Café's



- 01 수트라하버 리조트는 세계의 선셋 명소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 02 현대적인 고층 건물 타입의 퍼시픽 수트라 전경.
- 03,04 고풍스런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객실.
- 05 남중국 해에 접하고 있는 퍼시픽 수트라 수영장.
- 06 신선한 천연 성분 재료를 사용하는 만다라 스파는 자연 치유 효과는 물론 미용과 피부 재생 효과에 탁월하다.

Bole)와 점심 딤섬 뷔페와 88가지 맛의 축제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중식당 실크가든(Silk Garden), 야외 수영장에서 트로피컬 음료로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웨이브 바 등 먹을거리의 즐거움도 풍부하다. 이외에도 나이트클럽인 JUGS Bar에서는 다양한 음료를 즐기며 흥미진진한 밤을 보낼 수 있다. 골프 여행을 위해 리조트를 찾았거나 비즈니스차 머무르는 이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센터와 급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편리한 시설들도 두루 갖추고 있다. 리조트 곳곳에 있는 5개의 넓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태양을 피해 한카로이 책을 읽으며 휴양을 즐기는 것, 쾌적한 시간대를 골라 싱그러운 자연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 또한 이곳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호사다. 퍼시픽 수트라에도 만다라 스파 센터가 있으니 스파 일정까지 계획하려면 휴양을 누리기에 시간도 빠듯할 터다.

말레이시아의 보물, 수트라하버 리조트에서만 즐길 수 있는 네 가지

수트라하버 리조트에서는 편안한 휴양 외에도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며 호쾌한 샷을 날릴 수 있는 골프와 해양스포츠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트라하버 리조트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즐거움만 꼽았다.

Golf

평온한 자연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티샷

수트라하버 리조트에는 프라이빗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컨트리클럽이 있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직 인하우스 게스트와 골프 멤버십 회원만 라운드를 할 수 있는 수트라하버 마리나 골프&컨트리클럽. 퍼시픽 수트라와 마젤란 수트라 두 건물 옆으로 광대하게 펼쳐진 그린에서 키나발루의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고 편안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 골프 마니아들의 휴가에는 최적의 장소다. 이곳은 세계적인 골프 코스 디자이너 그레이엄 마쉬가 디자인한 세계 7대 골프장 중 하나로 2005~2006년 말레이시아 베스트 골프 리조트로 선정되기도 한 명소 중 명소다.

레이크 코스 9홀, 가든 코스 9홀, 헤리티지 코스 9홀의 총 27홀 코스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골프장은 버뮤다 잔디가 깔려 있어 더욱 호쾌한 샷이 가능하고 나이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밤 11까지도 자유롭게 시원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한국행 밤 비행기를 기다리는 여행 마지막 날까지도 소중한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2층으로 된 41개의 드라이빙 레인지와 프로숍, 미팅룸과 고품스런 탈의실을 갖춘 클럽하우스까지 부대시설 또한 기대를 넘어선다. 특히 라운드 후 골프장에 마련된 더 테라스(The Terrace) 레스토랑에서 비빔밥과 불고기 메뉴를 선택해 쏟아낸 기운을 되살리는 것은 이색 경험이 될 것.

아름다운 지형과 하얀 모래, 열대 기후지만 연중 쾌적한 날씨와 함께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골프장은 아마추어뿐 아니라 프로 골퍼들의 도전의 장이며 골퍼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낙원이라 할 만하다.

Taste

한국인 요리사가 선사하는 화려한 맛의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맛에 맞지 않는 현지 음식이다. 하지만 수트라하버 리조트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인 요리사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리를 선사하고 있어 음식에 민감한 아이들과 노년층을 동반한 여행객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이곳에 상주하는 한국인 최진숙 셰프는 호주의 요리 전문학교에서 국제 호텔 경영학을 이수하고 신라호텔과 카후나빌 레스토랑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국제적 미식가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준비된 요리사. 그녀가 선보이는 요리는 마젤란 수트라와 퍼시픽 수트라, 마리나 & 골프클럽뿐만 아니라 그룹 및 인센티브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맛볼 수 있고 갈비찜, 김치, 한식 요리와 일식, 이탈리아식, 양식 등의 다양한 메뉴가 리조트에 머무르는 동안 미각을 즐겁게 해준다.

Cruise

품격 높은 추억을 위한 푸트리 수트라


수트라하버 리조트에서는 해상 여행자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으며 호화로운 크루즈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진정한 럭셔리 휴양처 푸트리 수트라가 그 주인공. 최대 12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요트 푸트리 수트라는 해상 여행자를 위해 스노클링, 다이빙, 낚시, 단체 브레인스토밍, 혹은 단순한 휴식과 일광욕을 위한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 편리하다. 푸트리 수트라는 시간별, 종일, 반일 등 매 시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고 조식, 런치, 디너, 스낵, 오픈 바도 풀코스라 갖추고 있다. 허니문이나 가족, VIP 임원진 파티를 열 때 리조트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서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품격 높은 추억을 허락한다.

이외에도 최근 새롭게 선보이기 시작한 4~6인승 헬리콥터와 70인승으로 2008년 말 도입될 예정인 근대 증기선인 엠에스 콜럼버스(M.S Columbus), 뒤따라 250인승으로 도입될 예정인 실크 프린세스(Silk Princess)까지. 수트라하버 리조트에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다양한 즐거움이 곳곳에 숨어 있다.



Infinity

리조트 밖에 숨겨진 무한대의 재미

리조트에서 충분한 휴양을 즐겼다면 이번엔 수트라하버에서 운영하는 외부 시설들을 차례로 경험해볼 차례. 선착장에서 고속 페리로 15분이면 툰구 압둘라만 해양국립공원 마누칸 섬에 닿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해양스포츠와 선댄, BBQ 런치 등 열대 섬에서의 매력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동남아 최고봉 키나발루 산에서는 포링 윙하운천에서 천연욕을 즐기거나 아찔한 캐노피 체험으로 희귀 동식물 등을 둘러보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영국 통치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영국 중세의 증기기관차인 북보르네오 증기기관차에 몸을 실으면 타임머신을 타는 듯한 환상에 빠져볼 수도 있을 것. 키울루 강 래프팅, 꽃게잡이와 반딧불 투어, 코타의 청정 자연을 탐험하는 정글리버크루즈 등도 모두 때 묻지 않은 코타키나발루의 무한대 재미다. 

MODE TIP

골드카드 한 장으로 리조트를 마음껏 즐기자

수트라하버 리조트에서는 즐길거리가 많은 만큼 그것을 누리는 방법도 알차다. 수준 높은 식사를 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리나&컨트리클럽의 부대시설을 마음껏 이용한 다음 해양스포츠의 천국 마누칸 섬에서 한낮의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혜택이 '골드카드' 한 장이면 모두 가능하다. 부대시설 외에도 스파(바디 센서스:퍼시픽 수트라 1층, 만다라 스파:마젤란 수트라 1층), 골프(정규 홀 그린피), 해양스포츠(패러세일링, 제트스키, 카약 등), 헤어숍과 네일숍을 모두 1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아이들에게는 수트라하버 로고가 새겨진 예쁜 비치볼을 나눠준다.